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살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보국: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자성삼보 귀의해 계발·체험해 나가야 부처님 불씨 키우는 보리

오늘 법사님께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를 하게 되면 항상 법 우님들과 같이 더불어도 반입니다. 도반으로 토론 하되 서로 말을 하면 말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선행으로서 이어져 내려오는 도제양성은 지금 부실합니다. 모두가 경전에서 백지와 더불어 말씀하신 것과 뜻을 새겨서 우리가 더불어 도반이 돼서 서로 토론하고 가르쳐야 하는 길잡이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불자 인 줄 알지 마시고,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든, 모두가 불자 아님이 없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남음이 있으시겠지만,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쥐새끼가 어미를 찾아서 들어 가니까, 동우리에 있는 걸 내놓으니까 그 어미는 자식을 못 있어서 자식을 다 이끌고 다른 동우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거나,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거나 쥐새끼가 사는 거나 살림살이가 뭐 다 틀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자식이 부모를 찾고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끼를 돌보고 자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조그맣게 그냥 날려버렸지만 쥐새끼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다 못해 개구리새끼 하나 쥐새끼 하나, 짐승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살림살이와 똑같은다는 얘깁니다. 그 마음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듣지 마시고, 서로 뜻으로 또는 행으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하고 나가면서 행하는 그런 습을 길렀으면 합니다.

첫째, 부처님 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법당에 와서 짚이나 놓고 딱이나 놓고 비는 것이 불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성삼보에 귀의해서, 쉽게 말해서 계발하고 증득하고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 부처님 불씨를 키우는 보리(菩提)라고 합니다. 망상 자체가 보리심을 길러서 꽃 피우는 과정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보리심입니다. 여러분 뼈를 놓고, 가정 빼놓고, 사회 빼놓고, 국가 빼놓고, 세계 빼놓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태어난 게 그대로 화두며 대초인 것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지금 가만히 볼 때에 조그마한 반쪽짜리나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원통하고, 또 전자에 역사를 가져온 계기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지혜를 넓혀

둘째, 부처님 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법당에 와서 짚이나 놓고 딱이나 놓고 비는 것이 불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성삼보에 귀의해서, 쉽게 말해서 계발하고 증득하고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 부처님 불씨를 키우는 보리(菩提)라고 합니다. 망상 자체가 보리심을 길러서 꽃 피우는 과정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보리심입니다. 여러분 뼈를 놓고, 가정 빼놓고, 사회 빼놓고, 국가 빼놓고, 세계 빼놓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태어난 게 그대로 화두며 대초인 것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부처님 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법당에 와서 짚이나 놓고 딱이나 놓고 비는 것이 불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성삼보에 귀의해서, 쉽게 말해서 계발하고 증득하고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 부처님 불씨를 키우는 보리(菩提)라고 합니다. 망상 자체가 보리심을 길러서 꽃 피우는 과정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보리심입니다. 여러분 뼈를 놓고, 가정 빼놓고, 사회 빼놓고, 국가 빼놓고, 세계 빼놓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태어난 게 그대로 화두며 대초인 것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부처님 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법당에 와서 짚이나 놓고 딱이나 놓고 비는 것이 불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성삼보에 귀의해서, 쉽게 말해서 계발하고 증득하고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 부처님 불씨를 키우는 보리(菩提)라고 합니다. 망상 자체가 보리심을 길러서 꽃 피우는 과정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보리심입니다. 여러분 뼈를 놓고, 가정 빼놓고, 사회 빼놓고, 국가 빼놓고, 세계 빼놓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태어난 게 그대로 화두며 대초인 것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말만 듣고 그냥 주인공에 놓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행을 못 한다면 그것은 말 하나하나 건성 도는 일입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마는 자식과 부모,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부지만, 부모와 자식 이렇게 위로나 아래로나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행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서로 서로에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말 없는 무심(無心)의 자비심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떠한 악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겨놓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 정말이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부처 될 자격도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참다운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년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공업기술도 극복하여 아주 남보다 위대하게 급진전될 수 있고,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네 나이가 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혹독한, 정말 쫓기는 그 세월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뎠는지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게 가져온 것이 누구로 인해서 가져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것만 알고 또는 내 것만 알고 남의 것은 모르고, 바다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연구 재료는 발견하지 못하고, 유교로 인해 넓고 넓은 불법의 진리를 탐구하지 못하게 됐고, 내가 정당한 편안 하면 된다 하고 하는 그런 우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도 못했고, 발전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남의 처에서 그렇게 고통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뭇속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바람 잘 날 없이 자기를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력을 상실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래서 조그마한 집 한 덩어리를 그냥 태워버려야 합니다. 어른이나 애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이 정신력으로서 우리가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참나의 생활, 자재력이 시급한 것입니다.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말이 아닌 뜻으로 듣고
함의 없이 말하고
행하는 습을 길러야...



그림 · 최추현

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몸과 마음의 뜻을, 모든 게 공했으니 그 자리에 놓고 그냥 살림을 한다면,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한다면 그게 좌선이라고요.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은근 생활을 다해도 그것이 바로 좌선이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바깥에서나 모두가 머무르지 않고 그대로 잘나잘나 돌아가는 그 공한 도리를 우리가 그대로 안다면 그게 좌선이라고요. 이거는 사도다. 이거는 정도다, 또는 대도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갈라서 한다면 언제 한마음이 되며, 언제 모든 것을 버려서 모두 얻고, 내가 얻어 전부 내 것 아님이 없을 때에 비로소 모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며 모두 행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가시는 동안에 요새 선행담을 써 오시고 그러는데 너무나 저의 마음을 기뻐했습니다. 출가제자나 유발제자나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그 한마디하는 사이 없이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하신 게 없더군요. 그러면서 또 역력하게 여러분이 행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행해 나가시는 마음이라면 우리나라를 잡자게 할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없고, 전 세계를 움직여서 평화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앞에도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공을 찾았었는데 무슨 말할 건덕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슴없이 질문하고, 서슴없이 대답을 받고, 서로가 질문하고 토론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방귀를 끼기는 귀찮은데 퀸 사이가 없이 남아있지를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말을 하고 내가 뜻으로서 받아들였으면 먹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습니다. 그런 뜻을 알아서 서로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질문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질문한 끝에 내가 말을 하고 나면 질문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중동우미를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나중에 말씀드리죠. 어떻습니까?

어디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나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안 계십니까? 모두 정말 가려운 도인이십니까. 하하하. 제가 이리라고 해서 자만심을 갖지 마십시오. 나도 아직까지 내가 잘 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디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죠.

아마 부처님 나시기 전인지도 모르죠. 나도 이것을 들은 얘기도 되지만 내가 듣기 이전에 그 뜻을 헤아리고 보니까 너무나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천연적인 돌부처가 있었습디다. 그랬는데 그 돌부처는 별안간에 천둥 번개를 일으키더니 여자로 화했습디다. 여자로 화해서 오백의 아

들을 낳았습디다. 이 뜻을 잘 새겨보시면 또 아주 좋은 결과가 여러분한테 있으리라고 믿습디다. 오백 아들을 두었는데, 그 어머니는 오백 아들에게 나무도 해오고 뿔도 하고 또는 농사도 지으라고 그레서 산꼭대기에 밭을 마련해서 농사를 지었습디다. 그런데 밭이 없었는데 농사를 짓고 보니까 생물이 솟아서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었습디다.

그레서 그 아들들은 성장하기까지 어머니가 그대로 잘 이끌어가면서 먹이기 위해서 큰 솥을 걸고서 거기서 항상 밥을 할 수 없었습디다. 오백 아들의 죽을 쑤리니까 주걱도 눈을 치는, 뭐 그런 거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부뚜막에 올라서서, 부뚜막이나 제대로 있었습디니까마는 적적 적적 그렇게 항상 먹어왔는데, 하루는 아들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는 죽만 한 솥 솟아놓으시고선 어머니가 간 곳이 없습디다. 그래서 배가고 프리까는 죄 퍼먹고는 보니까, 그 속에 어머니가 빠져죽었지 않습디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져죽은 걸 보자마자 오와 소리를 지르는데 천둥 번개가 치더라면 그냥 오백 아들도 없어지고, 어

들이나 술도 없어졌습디다. 단 하나 남은 것은 백두산에 돌 고인 것밖에 없습디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어머니의 천둥 같은, 물이 갔는데도 천둥 같은, 번개같이 소리가 나오는 데 "너희 중 사백 명은 뒤로 서서 지키고, 이 삼십 명은 내려가는 데에 지키고, 사십 명은 올라오는 데에 지키고 또 한 명은 올라가는 데에 지켜라." 이십 구 명은 양쪽으로 나누어서 지키면서 물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나, 뭐 강 이름도 있어버렸습디다는 4개의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을 지키라고 했습디다. 만 중생을 먹여서 만 중생이 오르고 내려서 마음의 도리를 증득한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설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새겨 본 예가 없습디다.

지금도 백두산에 가려는 올라가는 물 옆으로 한참 떨어져서 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주 솟아오른 그 돌은 참 유명하습디다. 그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신동궁.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성신의 그 공 안에 불이 밝혀졌다. 그러니 모든 것을 보게 됐는데 왼쪽, 올라오는 데 또 바른쪽이지. 바른쪽으로는 사십 명이 쪼르르 내려다 보고 있습디다. 어머니마한 그 돌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광경이란, 그 돌이 모두 아들들이습디다. 그러니 우리가 사백 명

이러면 그 뒤에 병풍 둘러친 듯한 우거진 산중에서 전부 고개를, 백두산 허리를 두고 내려다보고 있습디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뜻이 어떠한 것일까? 무슨 까닭일까? 그 돌부처가 오백 아들을 낳은 까닭은 무엇이며, 그레 없어진 건 무엇이며, 오르고 내려면서 양식을 모두에게 쬐서 지금 먹고살고 있다는 사실 말습디다. 그걸 표현한 거죠. 백두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도 구절 구절이 보면 보는 대로, 저는 그것이 죽었다고 보지 않습디다. 길이길이 역사를 두고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도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서 그것을 역력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돼야 만이 우리나라도 역사를 앞으로 크게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디다.

그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디다. 여러분이 이 나라 국민에게 이익만 줄 수 있다면 어떠한 생각이든지 그것은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습디다. 오 국내의 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일, 아니 우주의 일도 삼천대천세계의 일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지금도 그 물이 세 강으로 흐르고 있고 뒤쪽으로 한 강으로 마저 흐르고 있으니, 참 이게 무진법문을 말없이 주는 그런 이치가 아닐까요?

또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습디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도 옛날에 들은 얘깁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지 않았습디다. 들으면서도 그 속에 뜻을 헤아려 봤습디다. 암남나무 풀이라고 하는 데서 부처님께서 큰 제자 비구들과 또는 보살들과 같이 계실 적에 보적(寶積)이라고 하는 장자(長者), 성에 역시 장자의 아들과, 오백 장자의 아들이라고 했습디다. 오백 장자의 아들과 같이 부처님 앞에 나서서 칠보로 장엄된 오백의 일산(日山)을 바쳤다고 했습디다. 오백의 일산을 바쳤는데, 부처님 위신력으로 그 오백 개의 보배 일산을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를 뒤덮었으며, 또는 대천세계의 모든 일체 만물과 천지를 바로 신동궁(神童宮) 가운데서 나타내게 했습디다. 그래서 대중들은 그거를 보고 희유하게 생각을 했고 또는 보적이는 찬불가를 지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했습디다.

요 필막한 말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벌어졌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삼천대천세계를 뒤덮었으며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오백 개의 보배 일산을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에 뒤덮었으며, 이렇게 했습디다. 그 거를 누가 말을 했고 누가 썼는지, 그 보지 않는 데서 행하시는 뜻을 적은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또는 부처님 당시에 큰 비구 제자와 보살들과 같이 계실 때에 하는 거는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비구도 보살도 부처도 둘이 아닌 까닭이요, 또는 상세히 생각한다면 장자라는 것은 내가 나가 이전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고, 장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거든. 그런 그 장자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공과 몸이, 몸은 마음의 아들이 되고 활용은 보살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오백 장자의 아들들이 보배 일산을 바쳤다면 그러면 한마음에 포함된 둘이 아닌, 한마음에 포함된 그것을 바쳤을 때에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성불은 했으나 열반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자 한마음으로서 일산을 바쳤을 때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대천세계와 더불어 한꺼번에 그냥 뒤덮었으며 한꺼번에 마음을, 즉 말하자면 요리를 했다 이겁니다. 요리를 해서 그 사람의, 즉 말하자면 대천세계의 모두를 요리를 해서 즉 전골을 만들었으니가 전골을 보여주는 거죠. 전골을 만들어서 전골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여주는 데는 누구한테 보여줬느냐 하면은 그 장자 아들들한테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신동궁.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성신의 그 공 안에 불이 밝혀졌다. 그러니 모든 것을 보게 됐는데 왼쪽, 올라오는 데 또 바른쪽이지. 바른쪽으로는 사십 명이 쪼르르 내려다 보고 있습디다. 어머니마한 그 돌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광경이란, 그 돌이 모두 아들들이습디다. 그러니 우리가 사백 명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

자기를 돌아다보고
분수를 지키고
믿고 놓는 공부를
술 사이 없이 해야...